

주간 경제지표 리포트 26.08.05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지난주 한눈에: 성장은 식어도 물가는 버틴다

지난주 지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헤드라인은 둔화, 속내는 완강'이다. 미국 2 분기 GDP 속보치는 전기비 연율 1.5%로 1 분기(2.1%)보다 낮아졌지만, 실제 민간 수요를 보여주는 민간 국내구매자 최종매출은 1.7%에서 3.9%로 오히려 뛰었고 물가(국내총구매 물가)도 3.6%에서 5.7%로 크게 올랐다. 정부지출·재고·수출이 헤드라인만 끌어내린 셈이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19 만 7 천 건으로 20 만 건 안팎 옆걸음이 이어진다.

유로존도 비슷하다. GDP 는 예상(0.2%)의 두 배인 0.4%로 나와 성장은 견조했지만, 헤드라인·근원·서비스 물가가 나란히 소폭 올랐고(2.9%·2.5%·3.3%) 실업자 수도 한 달에 7 만 1 천 명 늘어 최근 1 년 누적 증가폭을 넘어섰다. 일본은 6 월 CPI 가 예상(1.7%)을 웃돈 1.9%로 나와 BOJ 매파 기조를 뒷받침했고 기조 임금은 처음 3%대에 진입했다. 한국 광공업생산·소매판매는 일제히 개선됐지만 4~5 월 되돌림 성격이 크고, 최근 코스피 변동성 확대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다음주 꼭 볼 것: 8 월 7 일 미국 고용보고서

8 월 5 일 서비스업 PMI 릴레이가 시작이다. 미국 ISM(예상 54.5)·종합 PMI(53.6) 확장 지속은 현재 선물시장이 반영 중인 9 월 FOMC 인상 확률(77%)에 힘을 보탬 재료고, 반대로 독일·프랑스 서비스업 PMI(49.6·49.8) 위축권 정체는 ECB '측정된 조정' 스탠스를 재확인시킬 전망이다. 분수령은 8 월 7 일 미국 고용보고서다. 신규고용 8.0 만 명(전월 5.7 만 명)·실업률 4.2%·시급 3.5% 예상치가 7 월 FOMC 에서 매파 3 인(캐시카리·로건·해맥)이 25bp 인상을 요구한 이탈표와 정합적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중국 무역흑자(예상 1,080 억 달러, 전월 1,256.2 억 달러) 축소 여부도 대외수요 둔화 지속을 가능할 재료다.

Fed 는 6 월 만장일치 동결에서 7 월 9-3 분열로 매파 색이 짙어졌고, BOK 는 7 월 16 일 25bp 인상(2.50→2.75%)을 7-0 만장일치로 집행했다. 반면 채권형 펀드에서는 주간 순유출(-2,871)이 이어져, 자금은 이미 금리 상방 리스크를 피해 움직이는 모습이다.

지난주 발표 지표 리뷰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단위	분석
07/29	미국	기준금리 결정	3.625	3.625	3.625	%	미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3.625%로 나와 서프라이즈 없이 9 월 인상 반영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07/30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	200.0	187.0	197.0	천명	7 월 25 일로 끝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 만 7 천 건으로 전주보다 9 천 건 늘었지만, 흐름을 대표하는 4 주 이동평균은 20 만 2,750 건으로 오히려 5 천 건 줄었다. 이번 주 반등만 보고 노동시장이 다시 나빠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며, 4 주 평균의 하락도 상당 부분은 계산에서 높은 과거 수치가 빠져나간 데 따른 기술적인 효과다. 결론을 요약하면, 기업들의 해고는 여전히 20 만 건 안팎의 낮은 수준에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옆으로 기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심층]
07/30	미국	GDP	2.1	2.1	1.5		7 월 30 일 발표된 미국 2 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연율 1.5% 증가로 1 분기의 2.1%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다만 이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수요가 식었다고 판단하면 오독이다. 정부지출과 재고, 수출 쪽에서 감속 요인이 집중된 반면, 실제 민간 수요를 가리키는 지표인 민간 국내구매자 최종매출은 1.7%에서 3.9%로 오히려 두 배 넘게 뛰었고, 물가 역시 국내총구매 물가 기준으로 3.6%에서 5.7%로 크게 올랐다. 성장이 꺾였다기보다는 내수가 견조한 가운데 물가 압력이 강해진 그림이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의 주된 관심사인 지금 국면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수치는 속보치인 만큼 8 월 26 일 잠정치와 소득 측 지표 발표 전까지는 최종 판단을 유 [심층]
07/30	미국	PCE 물가	-0.1	0.4	-0.1	%	6 월 개인소비지출물가(PCE), 방향은 우호적이나 확정하기엔 이르다 [심층]
07/30	독일	GDP	0.6	0.5	0.9		유로존 2026 년 2 분기 예비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나타나 최근 네 분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경제 비중이 큰 핵심 국가들은 모두 0.2%로 평균을 밑돌았고, 어느 나라가 이번 확대를 실제로 얼마나 이끌었는지는 국가별 기여도 자료가 없어 아직 특정할 수 없다. 성장이 살아난 것 자체는 실재이지만, 그 내용은 고르지 못한 알은 반등으로 봐야 한다. [심층]
07/30	독일	소비자물가(CPI)	2.7	2.3	2.8	%	유로존 7 월 소비자물가 속보치(HICP)는 헤드라인이 2.8%에서 2.9%로,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가 2.4%에서 2.5%로, 서비스물가가 3.2%에서 3.3%로 나란히 소폭 올랐다. 다만 이번 상승분이 지난해 낮았던 기저 때문에 부풀려진 것인지, 아니면 이달 실제로 물가가 오른 것인지는 현재 자료만으로는 가려낼 수 없다. 8 월 19 일 나올 확정치와 품목별 기여도를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 반면 유보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진짜 문제는 이번 달의 변화폭이 아니라, 서비스물가가 3%대에서, 근원물가가 2%대 중반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는 수준 그 자체다. [심층]
07/30	유로존	실업률	6.2	6.2	6.3	%	유로존의 6 월 실업률은 6.3%로 집계돼 전월과 전년 동월 수치를 모두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업자 수가 한 달 사이 7 만 1 천 명 늘었는데, 이 증가폭이 최근 1 년간 누적 증가폭인 4 만 3 천 명보다 크다는 점이 눈에 띈다. 비율만 보면 반올림 범위 안에 머문 보험이지만, 인원 통계가 감소에서 증가로 방향을 튼 것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이어지던 완만한 개선 흐름이 멈추고 완만한 상방 압력이 시작되는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볼 근거가 된다. 다만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 같은 보조 지표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이 증가가 노동력 자체가 늘어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아니면 수요 위축에 따른 실질적 냉각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심층]
07/30	유로존	경기·소비심리	-15.9	-15.9	-15.9		유로존 7 월 경제심리지수, 저점권에서 방향은 돌아섰지만 회복이라 부르기엔 이르다 [심층]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단위	분석
07/30	유로존	GDP	0.2	-0.2	0.4		유로존 GDP 가 예상(0.2%)의 두 배인 0.4%로 나와 완만한 성장 모멘텀을 확인시켰다.
07/30	중국	GDP	—	—	—		중국의 2025 년 삼신경제(신산업·산업태·신산업모델) 부가가치는 25 조 7869 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2% 늘었고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도 18.39%로 0.38%포인트 확대됐지만, 이 숫자는 물가 변동을 제거하지 않은 명목 기준이라 실질 성장 가속으로 곧바로 읽어서는 안 된다. 성장을 우위 쪽의 상당 부분은 신성장 부문 자체가 강해서라기보다 명목 국내총생산이라는 분모가 약해진 데서 나온 상대적 착시일 가능성이 크고, 중국 경기에 대한 성장 우려와 디플레이션 우려 우위라는 기존 시각은 그대로 유지한다. [심층]
07/30	일본	소매판매	—	5.0	-1.0	%	2026 년 6 월 일본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5.0%에서 0.5%로 크게 둔화됐고, 계절조정 전월비로는 -4.1%까지 실제로 감소해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다만 같은 석 달을 묶어보면 2 분기 전월로는 전년동기비 2.8%, 전기비 1.8%로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 이번 6 월 숫자만으로 '소비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소매 쪽 수요가 식어가는 동안 도매 단계의 원자재 가격은 두 자릿수에서 많게는 40%대까지 뛰어올랐다는 점이다. 수요는 냉각되고 비용은 달아오르는, 전형적으로 불편한 조합이 이번 자료의 실체다. [심층]
07/30	일본	실업률	2.5	2.5	2.5	%	일본의 6 월 완전실업률은 2.5%로 5 월과 같아, 2 개월 연속 제자리걸음을 이어갔다. 같은 발표 안에서 노동력인구가 20 만 명 늘고 비노동력인구는 21 만 명 줄어드는 참가 확대가 함께 나타났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4 월 정점 이후 두 달 연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3 월 수치와 비교하면 6 월이 오히려 크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두고 고용 모멘텀이 뚜렷하게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개선도 악화도 아닌, 판단을 조금 더 유보해야 하는 국면으로 본다. [심층]
07/30	일본	산업생산	0.7	0.1	1.3	%	일본 산업생산이 예상(0.7%)을 크게 웃도는 1.3%로 나와 생산 즉 회복 신호가 강화됐다.
07/30	일본	소비자물가(CPI)	1.7	1.6	1.9	%	일본 CPI 가 예상(1.7%)을 상회한 1.9%로 나와 BOJ 매파 기조를 데이터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07/30	일본	유효구인배율	1.17	1.17	1.18	배	일본 유효구인배율이 1.18 배로 예상(1.17 배)을 소폭 상회해 노동시장 타이트함이 유지되고 있다.
07/30	일본	임금	—	—	—		기조 임금 3%대 첫 진입, BOJ 인상 논거는 두터워졌지만 구성효과가 평균단가를 누른다 [심층]
07/30	한국	산업생산	2.5	-0.9	5.8	%	2026 년 6 월 한국 실물지표는 광공업생산(+6.4%), 전산업생산(+2.3%), 소매판매(+2.7%), 설비투자(+5.8%) 네 가지가 일제히 개선되며 얼핏 전방위 회복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상승분의 상당 부분은 4~5 월에 빠졌던 것이 되돌아온 것이거나 자동차 같은 특정 품목에 쏠린 결과이고 정부 부문은 오히려 위축되어 있다. 민간이 이끈 완만한 개선과 부문 간 격차 확대가 공존하는 그림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며, 이번 자료는 아직 7 월 코스피 급락과 신용시장 경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점의 사진이라는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심층]
07/30	한국	소매판매	—	0.1	2.7	%	한국 소매판매는 컨센서스 없이 2.7% 증가로 발표돼 서프라이즈 판단은 어렵지만 소비 회복은 9 월 인상 논거에 참고된다.
07/30	영국	기준금리 결정	3.75	3.75	3.75	%	영국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3.75%로 동결돼 정책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07/31	미국	경기·소비심리	54.0	54.4	55.2	p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예상(54.0)을 웃도는 55.2 로 나와 소프트랜딩 서사에 부합하는 개선세를 보였다.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단위	분석
07/31	미국	고용비용지수(ECI)	—	—	3.4	%	2026년 6월 종로 분기 고용비용지수(ECI, Employment Cost Index)는 민간과 공공을 합친 전체(civilian) 총보상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3.4% 상승해 직전 분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임금·급여 상승률은 3.4%에서 3.2%로 낮아졌고 복리후생 상승률은 3.6%에서 3.8%로 높아지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임금 쪽만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그러지는 신호로 읽을 수 있지만, 관측치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아 이를 뚜렷한 추세로 못 박기는 이르다. 반면 실질임금은 명목 기준 둔화보다 한발 더 나아가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섰고, 의료보험 등 복리후생 비용은 여전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전체적인 비용 압력이 해소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금과 물가를 [심층]
07/31	독일	실업자 수	5.0	-1.0	6.0	천명	독일 실업자 수가 예상(5 천명 증가)보다 많은 6 천명 증가로 나와 노동시장 둔화가 예상보다 뚜렷했다.
07/31	프랑스	소비자물가(CPI)	0.3	-0.3	0.6	%	프랑스 CPI 가 예상(0.3%)의 두 배인 0.6%로 나와 유로존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에 힘을 보탰다.
07/31	중국	제조업 PMI	50.0	50.3	49.2	p	중국의 7월 국가통계국(NBS)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49.2, 비제조업 49.0 으로 두 지표 모두 6월(각각 50.3, 50.2)의 확장 국면을 벗어나 위축 구간으로 넘어갔다. 이번 달의 특징은 헤드라인 숫자와 그 안의 수요·가격 흐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이다. 6 월까지는 헤드라인이 좋아 보여도 신규주문이나 가격 흐름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같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것 같음이 사라졌다. [심층]
07/31	일본	기준금리 결정	1.0	1.0	1.0	%	일본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1.0% 동결돼 표결 내용과 별개로 정책 자체의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07/31	영국	주택가격	0.1	0.0	0.1	%	영국 주택가격은 예상과 동일한 0.1%로 나와 서프라이즈 없이 완만한 흐름을 이어갔다.
08/01	한국	무역·수출입	—	—	62.8	%	7월 수출은 988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2.8% 늘어 역대 2위 레벨을 지켰고 무역흑자도 30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건넌 하루 평균 수출액은 6월 45억 4천만 달러에서 7월 41억 2천만 달러로 9.3% 줄어, 정점을 찍은 뒤 처음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여전히 헤드라인 증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흐름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속도가 둔화되는 첫 신호는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심층]
08/03	미국	제조업 PMI(ISM)	54.0	53.3	55.6	p	미 ISM 제조업 PMI 가 예상(54.0)을 웃도는 55.6으로 나와 제조업 확장 강도가 예상보다 강했다.
08/03	미국	제조업 PMI	53.8	53.8	53.9	p	미 제조업 PMI(S&P)는 53.9로 예상(53.8)을 소폭 상회해 ISM과 같은 방향의 확장 신호를 냈다.
08/03	프랑스	제조업 PMI	50.0	50.0	49.8	p	프랑스 제조업 PMI 가 49.8로 예상(50.0)을 밑돌아 경계선 아래로 재진입했다.
08/03	중국	제조업 PMI(Caixin)	51.5	51.7	50.9	p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가 50.9로 예상(51.5)을 하회했으나 확장 국면은 유지해 Stagnation 재분류와 결이 같다.
08/03	일본	제조업 PMI	54.7	54.7	54.5	p	일본 제조업 PMI 는 54.5로 예상(54.7)을 소폭 밑돌았지만 확장세 자체는 견조했다.
08/03	일본	본원통화	—	-13.71	-13.87	%	일본 본원통화가 -13.87%로 나와 컨센서스는 없으나 감소폭이 커 유동성 축소 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실제	단위	분석
08/03	한국	소비자물가(CPI)	0.1	0.1	-0.2	%	7월 소비자물가는 겉으로는 누그러졌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단단해졌다.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8%로 6월(3.2%)보다 0.4%포인트 낮아졌고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2.5%로 6월(3.4%)보다 크게 둔화됐다. 그런데 정작 통화정책 판단의 축이 되는 근원물가는 두 가지 산출 방식 모두에서 오히려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 근원물가는 2.5%에서 2.6%로, 한국식 근원물가는 2.4%에서 2.5%로 각각 0.1%포인트씩 높아졌다. 표면과 기저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이런 구도는 사실 낯설지 않다. 다만 이번에는 그 방향이 뒤집혔을 뿐이다. [심층]
08/03	한국	제조업 PMI	—	52.1	53.1	p	한국 제조업 PMI는 53.1로 컨센서스 없이 발표됐으며 확장 국면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08/03	영국	제조업 PMI	52.8	52.8	51.9	p	영국 제조업 PMI가 51.9로 예상(52.8)을 하회해 확장 속도가 다소 둔화됐다.
08/04	미국	무역·수출입	—	—	-73.3	bn\$	6월 미국 무역적자는 733억 달러로 전월(776억 달러) 대비 5.6% 줄었지만, 이 축소를 곧바로 경기 개선 신호로 읽기는 이르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드는 가운데 나타난 축소인 데다, 비교 대상인 5월 수치에도 금(金) 관련 특이 요인이 섞여 있어 그 부분을 걷어내고 봐도 방향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계절 변동을 걸러낸 3개월 이동평균 적자는 685억 달러로 전월보다 56억 달러 늘어 확대 쪽을 가리키고 있어, 단월 수치와 추세 수치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상태다. [심층]

다음주 발표 예정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단위	관전포인트
08/05	미국	서비스업 PMI	53.6	53.6	p	예상치 53.6 으로 전월과 동일, 확장세 유지 시 9월 인상 반영 심화 가능성에 힘을 실는 재료다.
08/05	미국	서비스업 PMI(ISM)	54.5	54.0	p	ISM 서비스업은 54.5로 전월 54.0 대비 소폭 개선 전망, 확장 지속이 인상 반영 강화 재료가 될지 주목한다.
08/05	미국	종합 PMI	53.6	53.6	p	종합 PMI 는 53.6로 보합 전망, 서비스업 주도 확장 지속이 시장의 인상 반영 강화와 맞물릴지 확인한다.
08/05	유로존	서비스업 PMI	51.6	51.6	p	확률가중: EURUSD 서비스업 PMI와 방향 중복 시 효과 배가, 단독으로는 소폭 강세 편향 · 관전포인트: 컨센서스 51.9, 확장선 50.0, 서비스업 PMI와 동시 Miss 시 유로존 둔화 서사 트리거 [시나리오]
08/05	프랑스	서비스업 PMI	49.8	49.8	p	49.8로 전월과 동일한 위축권 유지 전망, 50 하회 지속이 유로존 성장 둔화를 재확인할지 지켜본다.
08/05	독일	서비스업 PMI	49.6	49.6	p	49.6로 위축권 정체 전망, ECB의 '측정된 조정' 스탠스에 근거를 더할지 관찰 대상이다.
08/05	중국	서비스업 PMI(Caixin)	—	54.1	p	확률가중: USDCNH 약세 쪽 소폭 편향(Miss 확률·임팩트가 Beat 대비 우세), 구리 중립~소폭 하방 편향 · 관전포인트: 50.0 확장선, 전기 54.1 대비 방향, 특히 51 이하 시 둔화 서사 확정 트리거 [시나리오]
08/05	일본	종합 PMI	—	53.1	p	확률가중: USDJPY_expected_move 미세 변동, 엔 약세 쪽 소폭 편향(-Beat +Miss 상쇄로 거의 중립) · 관전포인트: 확장/위축 분기선 50.0 상회 지속 여부, 53.1(전기) 대비 방향 [시나리오]
08/05	일본	서비스업 PMI	—	51.9	p	예상치 없이 전월 51.9 기준, 확장세 유지 여부가 BOJ 추가 인상 압력 논거를 보강할지 주목한다.
08/05	영국	종합 PMI	52.1	52.1	p	52.1로 보합 전망, 확장세 유지가 영란은행 정책 판단의 참고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08/06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	202.0	197.0	천명	20.2 만명으로 전주 19.7 만명 대비 소폭 증가 전망, 노동시장 완만한 냉각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
08/06	독일	내구재 주문	0.3	1.9	%	0.3%로 전월 1.9% 대비 증가폭 축소 전망, 제조업 모멘텀 둔화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다.
08/06	영국	종합 PMI	—	48.4	p	전월 48.4의 위축권 기록 이후 개선 여부가 확인 대상이며, 예상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08/07	미국	임금	3.5	3.5	%	평균시급 상승률 3.5%로 전월과 동일 전망, 임금 압력 안정이 서비스 인플레이 경로에 참고자료다.
08/07	미국	실업률	4.2	4.2	%	4.2%로 보합 전망, 완만한 노동시장 냉각 기조가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08/07	미국	고용보고서	80.0	57.0	천명	8.0 만명으로 전월 5.7 만명 대비 반등 전망, 7월 FOMC 매파 이탈표 눈거와의 정합성이 관전포인트다.
08/07	독일	산업생산	0.1	0.9	%	0.1%로 전월 0.9% 대비 증가폭 크게 축소 전망, 제조업 회복 모멘텀 약화 여부를 확인한다.
08/07	중국	무역·수출입	108.0	125.62	십억\$	무역흑자는 1,080 억달러로 전월 1,256.2 억달러보다 축소 전망, 대외수요 둔화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
08/07	영국	주택가격	0.1	0.2	%	0.1%로 전월 0.2% 대비 상승폭 둔화 전망, 주택시장 모멘텀 약화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
08/09	중국	생산자물가(PPI)	3.8	4.1	%	PPI는 3.8%로 전월 4.1%에서 둔화 전망, 공급강·수요약 국면의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
08/09	중국	소비자물가(CPI)	0.8	1.0	%	CPI는 0.8%로 전월 1.0% 대비 둔화 전망, 내수 부진에 따른 저물가 기조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
08/09	일본	경상수지	—	3968.3	십억엔	전월 3,968.3 십억엔 기준, 흑자 규모 변화가 엔화 흐름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한다.
08/11	미국	주택지표	4.07	4.09	백만호	407 만호로 전월 409 만호 대비 소폭 감소 전망, 고금리 장기화 속 주택시장 냉각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
08/11	일본	통화량	—	2327.9	조엔	전월 2,327.9 조엔 기준, 통화량 증가세 흐름이 BOJ 추가 인상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한다.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단위	관전포인트
08/11	일본	단칸지수	—	25.0	p	전월 25.0p 기준, 기업 심리 수준 유지 여부가 BOJ 매파 신호와 정합되는지 확인한다.
08/12	독일	소비자물가(CPI)	—	2.8	%	확률 가중: EUR/USD -0.15~-0.20% (Miss 가중 하방 편향 우세), Bund 10Y -2~-3bp (Miss 가중 하락 편향), ECB 경로 현 2.25% 앵커 유지 확률이 높으나, Miss 시 하향 리프라이싱 경계 · 관전포인트: Core CPI YoY 2.4% 사수 여부 (컨센서스 앵커) — 2.2% 하회 시 ECB 인하 가속 재가격 / 2.6% 상회 시 터미널금리 상향 리프라이싱 트리거. CPI MoM 0.0% 경계선도 주시. [시나리오]
08/12	일본	생산자물가(PPI)	—	0.4	%	전월 0.4% 기준, 물가 전가 압력의 지속 여부가 BOJ 인상 경로 논거에 참고자료가 된다.

자료: LSEG, Factse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